

‘어게인 2019’ ... 최강 프랑스 꺾었다



김은중호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프랑스를 격파하며 ‘어게인 2019’를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밀리면서도 역습과 세트피스로 먼저 2골을 넣는 결정력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주장 이승원(강원)이 선제골을 넣고 결승골을 배달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결승골은 이영준(김천)이 터뜨렸다.

이로써 이날 1차전이 끝난 F조에서는 한국과 감비아의 나란히 1승으로 공동 선두, 프랑스와 온두라스는 1패씩을 기록하게 됐다.

24개 팀이 4개국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이 대회에서는 각 조 1, 2위에 조 3위(6개조 3위 중 4개 국)까지도 16강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 U-20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2017년 한국 대회(기니전 3-0 승) 이후 6년 만이다.

프랑스는 이 대회에서 1차례 우승(2013년) 및 4위(2011년), 2차례 8강(1997, 2001년)과 16강(2017, 2019년)을 이룬 강호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세계적인 강호 프랑스를 이긴 건 처음이다.

앞서 1997년 말레이시아 대회에서 2-4, 2011년 콜롬비아 대회에서 1-3으로 프랑스에 진 바 있다.

한국은 프랑스와 U-20 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 2승 3무 4패를 기록했다.

김은중호는 이영준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강상윤(전북)을 새도 스트라이커로 세우는 4-4-1-1 전술로 나섰다.

프랑스는 공 점유율 57%를 기록하며 우세하게 경기를 끌었다. 전반 15분까지는 프랑스의 점유율이 75%를 찍었다.

U-20 월드컵 첫 경기 2-1 승
주장 이승원 1골 1도움
골키퍼 김준홍 철벽 방어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

한국은 잔뜩 옹크리다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으로 골을 노렸다.

프랑스의 공세를 겨우 막아내던 한국은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나온 ‘캡틴’ 이승원의 골로 앞서 나갔다.

한국은 이후에도 프랑스에 여러 차례 킥백을 허용하는 등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점하지는 않았다.

후반 들어 프랑스의 공세는 더 매서워졌다.

후반 5분 자책골이 들어갈 뻔했다. 상대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박현민이 머리로 걷어낸다는 게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김준홍이 가까스로 걷어냈다.

위기를 넘긴 한국은 후반 19분 세트피스로 추가 골을 올렸다.

이승원이 왼쪽에서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이영준이 훌쩍 뛰어올라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했다.

좋았던 분위기는 주심의 석연찮은 페널티킥 판정에 한풀 꺾였다.

상대 크로스를 편칭하러던 김준홍이 헤더를 노리며 세도하던 말라민 에페켈레의 어깨에 안면을 부딪쳐 쓰러졌다.

크로스가 김준홍의 손에 닿지 않고 흐른 가운데 주심은 김준홍이 에페켈레에게 파울을 범했다고 판단, 그에게 옐로카드를 주고 프랑스에 페널티킥을 줬다.

후반 25분 키커로 나선 알랑 비르지니우스가 골대 왼쪽으로 슈팅해 프랑스의 만회골을 올렸다.

한국은 26일 오전 6시 온두라스를 상대로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23일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한민국 대 프랑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이승원이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순위 싸움의 관전은 ‘컨디션 관리’

상위권 진입 위해선 부상 최소화
마운드 최지민 페이스 유지 중요



몸은 풀렸다. 컨디션 관리가 순위 싸움을 좌우한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연패와 연승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극과극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KIA에 필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안정적인 질주를 위해서는 부상 최소화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KIA는 시즌 시작부터 부상 악재를 만났다. 타선의 핵심 나성범이 왼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아직 시즌을 개시하지 못했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올 시즌 타선에 신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던 김도영도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했다.

두 선수의 복귀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나성범은 6월 말, 김도영은 7월 초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3일 세종정형외과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나성범은 부상 부위가 90% 이상 회복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근력 강화 운동과 기술훈련 등을 진행한 뒤 퓨처스 게임 출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도영은 재검진에서 골절부위가 90% 가량 아물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러닝과 부분적인 기술훈련도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김도영은 3-4주 러닝·기술훈련을 한 뒤 퓨처스 게임 출장을 준비하게 된다.

부상 악재는 있지만 현재 전력을 극대화 해 순위 싸움을 펼치는 게 KIA의 목표. 기온이 오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도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지난 주 승리의 주역이 됐다. 투수들에게도 따뜻한 날씨가 부상 방지에도 좋다.

문제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력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있는 만큼 더운 날씨도 체력 부담을 가중시킨다.

최상 전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벤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용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백업 선수들의 경기감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최지민

‘마운드 셋업’ 최지민의 페이스 유지도 뒷선 싸움의 관전이다. 올 시즌 구속이 오르면서 자신감을 더한 최지민은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면서 ‘선순환’ 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 삼성전에서 두 번째로 긴박한 순간 끝까지 피칭으로 프로 첫승에 이어 첫 세이브까지 수확했다.

실력으로 입지를 넓어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최지민은 5경기가 진행된 지난 주 4경기에 나와 3.2이닝을 책임졌다. 21일 경기까지 올 시즌 18경기에 나와 임기영에 이어 불펜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1이닝을 소화했다.

최지민은 프로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6경기에서 6이닝을 던졌다.

무엇보다 지난 겨울 질풍코리아로 소속으로 호주 리그에도 참가하는 등 바쁘게 달려왔던 만큼 최상

의 컨디션으로 시즌을 완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용이 필요하다.

포수진 운용도 관심사다. 포수는 가장 체력적인 부담이 많은 포지션이다.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는 마운드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포수들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적절한 전력 안배가 필요한 상황. 김중국 감독도 한승택을 중심으로 신범수의 활용도를 높일 생각이다.

김중국 감독은 지난 주 ‘체력 안배 문제도 있는 만큼 신범수의 선발 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택과 베테랑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 만큼 신범수는 신에 투수들과 배터리를 구성해 ‘안방’ 운영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복귀 준비 ... 다음 달 실전 공 던질 듯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23일(한국시간) 토론토 팬 사이트 ‘블루버드 밴더’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리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동행했다.

한동안 구단 스프링캠프 시설이 있는 플로리다주 다니언에서 재활에 집중해왔는데 이제 선수단 동행에 나선 것이다.

토론토 구단도 공식 트위터에 류현진이 트로피카나필드에서 ‘브이(V) 포즈’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친구”라고 적었다.

블루버드 밴더는 “류현진은 불펜 투구를 소화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등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헤이즐 메이도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 복귀 시간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활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말을 전했다.

류현진은 이날 불펜 투구를 거쳐 추후 라이브 피칭, 실전 투구의 순서를 밟아 올해 7월 중순 마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지난 16일 “류현진과 그린이 다음 달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수술)을 받고 2022시즌을 접은 채 재활에 전념해왔다. /연합뉴스

돌아온 정현, 워블던 도전 준비

“잔디 코트 적응력 높ی겠다”

오랜 부상을 이겨내고 테니스 코트로 돌아온 ‘호주오픈 4강 신화’ 정현(27·사진)이 워블던 도전에 나선다.

정현의 매니지먼트사에 따르면 정현은 오는 7월 3일 개막하는 워블던 남자 단식 출전을 추진 중이다.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열린 대회에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되찾은 정현이 워블던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코치, 피지컬 코치 등 해외 투어 일정을 함께 소화할 스태프를 섭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020년 9월 열린 프랑스오픈 이후 1년 반 넘게 코트를 떠났던 탓에 단식 랭킹이 없는 정현이 워블던 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프로텍티드 랭킹(PR) 제도 덕이다.

PR은 부상 때문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랭킹이 내려간 선수가 부상 이전의 랭킹을 인정받아 대회에 나가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PR을 쓸 수 있는 대회 횟수에 제한이 있다.

정현의 PR은 159위로 워블던 예선 출전을 노려 볼 수 있는 순위다.

정현은 2013년 워블던 주니어 남자단식에서 준우승하며 세상에 이름을 알린 좋은 기억이 있다. 워블던 성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1회전에서

탈락했던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워블던 출전에 앞서서는 영국에서 열리는 챌린저 대회에 출전하며 잔디코트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현은 2018년 호주오픈 단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고인 4강에 오르며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후 허리 부상 등으로 꾸준히 활약하지 못했다.

2020년 프랑스오픈 이후로는 재활에 집중해왔다.

정현은 2022년 9월 코리아오픈에서 권순우(당진시청)와 함께 복식조로 출전하며 코트로 돌아왔으나 이어진 서울오픈 챌린저에는 단식에 출전하려다 몸 상태가 다시 나빠진 탓에 불참했다.

정현은 지난달 열린 서울오픈 챌린저에서 1년 7개월 만의 단식 복귀전을 치렀고, 이어진 부산오픈에도 단식에 출전했다.

다만, 두 대회 모두에서 1회전 탈락하면서 ‘코트 복귀 승’ 사냥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정현